

분양 3년 됐는데 입주율 고작 18.8%

장흥 기산지구 전원마을
32세대 중 6곳만 입주
건축비 부담 외지인 입주 미뤄
택지조성 졸속 추진도 한 몫



장흥 안양면 기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3년이 지났는데도 10%대 입주율에 그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장흥 기산지구 '전원마을'이 3년이 지났지만, 10%대 입주율을 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특히 관련 법규에 전원마을 주택은 택지분양 후 2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어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거나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 50-8번지 일원 4만4612㎡(1만 3495평) 부지에 32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택지를 조성, 분양을 마쳤다.

기산지구 전원마을은 전체 부지 4만4612㎡ 가운데 2만4772㎡(7493평)가 주택용지이며, 나머지 1만9840㎡(6000평)은 공원 등 공공용지이다. 세대당 250평(평당 30만원선)씩 분양받았고, 지역별로는 장흥 10세대, 광주·전남 15세대, 경기 3세대, 서울·인천·제주·전북 각 1세대씩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전체 32세대 중 겨우 6세대만이 입주(4세대) 또는 주택 건축(2세대) 중에 있다.

전원마을 입주율이 부진한 데는 가구당 최소 2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부담돼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이 장흥군의 분석이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택지 조성이 졸속으로 추진돼 입주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이 국비 지원 사업에 얽매어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들에게 상당수 택지가 분양됐고, 이들이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시세 관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인근의 '로하스타운' 조성이 부진한 것도 기산지구 전원마을 입주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택지 분양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준공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농어촌정비법에는 분양 당사자의 토지매매(전매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을 착공하고, 24개월 이내에 준공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재 규정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건설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전원마을 주택 준공은 규정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마땅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강제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1000원 버스·100원 택시...농촌형 교통복지 롤모델

장애인·교통약자 편의 기여
군민 경제적 부담 줄여 호응



화순군이 도입한 '1000원 버스'와 '100원 택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도입한 1000원 버스와 100원 택시 등이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버스비 1000원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가 농촌주민 교통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

1000원 버스는 화순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요금을 성인 기준 10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제를 적용한다. 운행 구간이 화순 지역이든 노선이나 이용 거리와 관계없이 똑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요금은 현금 기준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중·고생 500원(교통카드는 100원씩 할인)으로 나머지 요금은 군이 보전한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를 지원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이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화순군은 또 교통 취약지역 65살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행해 왔던 '100원 효도택시'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대폭 확대했다.

지난 2014년 12월 도입된 100원 택시는 이용대상 마을이나 운행 횟수, 이용객, 예산액 등이 꾸준히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37개 마을 534명에서 올해 77개 마을 1328명으로 증가했고 누적 이용객도 이미 38만 명을 넘어섰다.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리도 나아지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12년부터 운행한 장애인 콜택시를 내년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장애인뿐 아니라 65살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6대로 내년 1대를 증차할 예정이다.

구축된 화순군수는 "1000원 버스 운행, 맘 편한 1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으로 교통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며 "3대 교통복지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훈훈한 온정 손길 잇따라

“후배 교육 써 달라” 2년 연속 500만원씩 장학금

장흥 문영수·이현순
주인영·김청자 부부



장흥군에 거주하는 두 쌍의 부부가 남다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11일 (재)장흥장학회에 따르면 장흥군 문영수·이현순 부부와 서삼면 주인영·김청자 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후배들의 교육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진원농협 조합장을 지낸 문영수 씨는 현재 장성 향교 전교를 맡아 유림 화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문 전교는 부인 이현순 씨와 뜻을 모아 올해 수학한 쌀 판매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서삼면의 주인영 씨는 1968년부터 2016년까지

장흥군 진원면 문영수·이현순 부부와 서삼면 주인영·김청자 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재)장흥장학회에 기탁했다.

(장흥군 제공)

장성읍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밀알회 1~3대 회장직을 맡아 활동했다. 아내 김청자 씨도 (사)한국예총 장흥군지부 5대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 참여하고 있다. (재)장흥장학회는 두 부부와 같은 독지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6월 지역학생 89명에게 88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흥=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오리협회 강진지부,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한국오리협회 전남지회 강진군지부는 최근 장학금 300만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이승욱 강진군수)에 기탁했다.

(사진) 장학금은 김정배 지부장(양명자연농장 대표)이 200만원을, 회원들이 100만원을 모아 쾌척했다. 강진군지부는 강진 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총 10차례 14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정배 지부장은 “강진 오리농가를 성원해준 군민에게 보답하고자 올해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강진 발전을 이룰 인재육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육성에 공과 희망을1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금1,000,000원 송일백만원 한국오리협회 전남지회 강진군지부

한국서부발전, 장흥자활센터에 겨울이불 50채 기부

한국서부발전(주)은 최근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전해 달라며 겨울이불 50채를 장흥지역자활센터에 기탁했다.

(사진) 겨울이불은 장흥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취약계층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주현 서부발전 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수미 장흥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



장흥 지역사랑과다 저소득계층 지원사업 이불 50채

겠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위해 겨울이불을 지원한 서부발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